

새로운 노트

2025.06.03 화 오후 5:13 · 50분 28초

이태수

참석자 1 00:01

LLM이 해 주기 쉬운 형태가 타이 스크립트라서라고 하기에 좀 그렇고 선택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컴포넌트 재사용이라든가 타이 스크립트가 그런 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들

참석자 2 00:12

제가 그때 머릿속에는 skip 장고 넥스트스 이 3개만 있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내 서버를 대체 이것까지만 알고 있었어 가지고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했었거든요.

참석자 3 00:24

그래서 II은 친화적이지 않다고 하면 되죠. 뭐 그래서 그냥 장부는 무조건 써야 되니까 써라

참석자 1 00:45

인호 님만 들어주면

참석자 1 00:52

사실 장고 아니었으면 400 패스트 API로 했죠.

참석자 3 00:55

그렇죠 그렇죠 테스트 API로 하겠다.

참석자 3 01:14

사실 LMM 친화적으로 가려면 무조건 테스트 API가 되는 거고 그냥 장고를 배워서 쓰긴 해야 되니까 중간에 나는 거

참석자 3 01:35

이때는

참석자 3 02:09

중간 발표가 다다음 주죠.

참석자 2 02:11

네. 왕복 3일

참석자 2 02:16

그리고 이따가 다 이제 바로 보여드릴 거긴 한데 멘토링 저희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중간 발표에 어떤 큰 대분류라든지 소품이 카테고리 같은 거 해오라고 하시고 그때마다 해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한번 피드백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일단 최대한

참석자 3 02:36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했듯이 논문 쓸 때도 그런데 교수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많이 쓰면 쳐내기만 하면 되는데 많이 안 쓰면 다시 재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더 힘들 작업이기 때문에

참석자 2 02:55

바로 공유드릴 테니까. 네 네

참석자 2 03:03

일단 그전에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는 에이전트 3 뉴스 트렌드 이슈 자동 수집
부분

참석자 3 03:10

마이크가 어디 켜져 있네요. 이 a 원이 이렇게 켜져 있네요.
맞습니다. 네네.

참석자 2 03:18

그게 예영 님이랑 태수 님이 구현을 해 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매일 아침 6시마다 이게 작동이 되는 상태여가지고 저희 포스트
블리 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참석자 1 03:29

강사님이 모레 보여드릴까

참석자 3 03:33

인원이 없었어요. 그때 네

참석자 1 03:35

저 어제 저하고 규희 님이 어제 휴가를 냈습니다. 휴가

참석자 2 03:39

그러니까 잘하긴 했는데 물론 이 램다라는 이 부분 3수 차차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고 물론 또 정리해야겠지만 네 잘했는데 이거 누가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는 인호 님이 한 거 아니시냐고

참석자 3 03:52

네네네. 그래서

참석자 1 03:55

강사님이 코드 길고 돌아오면 제가 한 거라고 딱 압니다.

참석자 2 04:00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에이전트 세 부분을 나눠서 맡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인원 제한 나머지 팀원이 네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에이전트 하나를 그냥 마구라 더 만들어도 되고 그냥 하나씩 맡아서 한 다음에 가장 빨리 끝나는 분은 이제 여기 AWS 들어가가지고 AWS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코드를 수정하면서 시작하겠냐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참석자 3 04:27

AWS 코드를 수정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확하게

참석자 2 04:30

이 AWS에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 함수가 살짝 지저분한 상태여서 진짜 실무에서 사용할 법한 AWS 함수 구조로 바꿔주시는 일대일 강의 같은 걸 해 주실 건가 봐요.

근데 에이전트가 만약에 구현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렉을 하든지 아니면 분석

에이전트 코드 에이전트가 된다고 하면 강사님께서 지금 중간 목표 PPT에 두 번째 에이전트 리그 에이전트만 된 다음에 그것만 씌운 영상에 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넘기고 최종 발표 때 다 보여주고

참석자 3 05:07

지연이 영상

참석자 2 05:08

네 어떤 걸 바로 시험 영상에 리그 쪽만 네 리그 쪽만 두 번째 에이전

참석자 3 05:12

저희가 그냥 보여줄 수 있으면 다 보여주면 되지 않나요?

네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뭐 치사 선택이 그 저희 선택인 것 같긴 해요.

참석자 1 05:25

모델만 만들어지면은 바로

참석자 3 05:28

이 코드는 어떤 식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대요? 이런 밑에 있는 코드들을 그냥 패키지화해가지고 호출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대요.

참석자 1 05:40

지금 이게 테스트팅 같은 것도 다 돼 있어 가지고 테스트팅 부분 다 지워버리고 모듈화 살짝 시켜놓는 거 원하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환경 변수 설정 안 돼 있으면은 로컬 테스트팅용으로 환경 변수 넣도록 세팅

돼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다 지워버리고

참석자 3 06:06

지금 이거는 뭐 무슨 장 만든 거죠 그래서 키워드 추출하는 거예요.

참석자 4 06:12

이거 파인콘이랑 연결해가지고 그 배터 DB에 있는 포스트 포스트 그 그러니까 DB에 있는 거에 대한 문서 검색 키워드를 던져주면은 불러오거나 질문하면 불러오거나 그쪽으로

참석자 3 06:29

배치 잡을 돌린다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약간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벡터 DB에 뭔가 적재를 남겨요.

참석자 1 06:38

이거 배터리를 안 건드리는데요. 파이콘에서 그냥 데이터 블로우는 뭐라고 할 때 파이콘이 아니라 이거 지금 이 란드 함수 물어보시는 거

참석자 2 06:49

기사도 많이 아침에 트렌드 요약 같은 거 그거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6시에 그 이슈가 되는 거 수집을 하고 그 이슈들 수집된 데이터들을 띄워 포스트들에 저장될 거니까 이제 자동 수집하는

참석자 3 07:03

수집이죠. 네

참석자 1 07:05

하루마다 통신사 관련 뉴스 통신사 스마트폰 그런 거 관련된 뉴스 같은 거 수집
해가지고 저희 테이블에 맞게 맞아 놓는

참석자 3 07:17

테이블에 맞게 그림 포스트 그룹을 넣는 거죠.

참석자 1 07:22

지금 어떻게 놓여지고 있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6월 2일 이거는 왜

참석자 3 07:31

그림 포스트 그룹에 넣어서 다시 또 레그 작업을 할 때 추출을 하는 요 포스트
그룹으로 지금 이거를 그 키워드 같은 것들을

참석자 2 07:40

레그하는 형식은 저희가 지정해 줘야 될 자리

참석자 1 07:43

일단 저희가 키워드 자체를 저희가 지정해 놓은 단어들에서 많이 언급되는 거
를 키워드로 넣도록 했는데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좀 LDM이 키워드 여기서 뽑아
내라고 하는 식으로 좀 수정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참석자 3 08:01

이걸로 가면 안 돼

참석자 1 08:02

에드레한테 키워드 뽑아달라고 할까요? 그냥 통신사 관련해서

참석자 3 08:06

네 그게 일단은 좀 나올 것 같고 왜냐하면 어떠한 특정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건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tfidf 같은 거 좀 써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문서 안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보다 특정한 유니크한 단어들에 대한 가중치가 좀 더 나오니까 그런 걸로도 키워드를 잡아도 되고 아니면 그 두 개 합쳐도 되고 그래서 그거는 좀 그런 식으로 제이슨 형태라든지 해가지고 키워드를 LLM 형태로 추출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긴 해요. 뉴스가 몇 개 정도 돼요? 그럼 에르램의 배치 샵으로 몇 개를 돌아야 돼요 뉴스가 만약에

참석자 1 09:00

지금 제가 태수 님이 작성한 코드 기반으로 다에다가 램다에서 실행되게 한 건데 지금 현재 코드는 지금 테스트하다가 바로 넣어 가지고 이게 뉴스가 제일 금일 뉴스 중 가장 상단에 검색되는 거 상단에 검색되는 거 그거 하나만 지금 들어

참석자 3 09:27

지금 챗gpt나 이런 거 쓰더라도 아마 동시에 배치 잡으로 a 싱크 같은 거 날리는 게 있을 거예요.

한 번에 50개씩 날리거나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 해가지고 뉴스 한 100개 정도 50개 정도 해가지고 키워드를 추출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일정한 제이슨 포맷으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넣어주던지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거를 그냥 아까 말했던 포스트 그레에서 그냥 뽑아가지고 그 제이슨을 뽑아서 그냥 LRMM 피딩 해 줘도 되고 아니면 그거를 한번 전처리를 해줘서 해줘도 되고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면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참석자 1 10:03

지금 근데 뉴스가 수집되고 있는 거 보니까 정치 뉴스랑 연예 뉴스들이 다 섞여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참석자 3 10:10

그것도 전처리하는 스텝을 하나 만들면 정치 정치

참석자 1 10:16

종합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정치 부분이랑 연예 부분이랑 연예는 필요 없어 이슈 부분 다

참석자 3 10:24

정치랑 통신사는 뭔가 관련이 있을까 근데 그것도 넣지 말자 뭔가 그럼 어디 섹션을 봐야 되지 경제여야 되나

참석자 2 10:34

경제나 it 쪽

참석자 3 10:35

경신 it 통신사 쪽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전처리를 한번 거치고 일단 그다음에 그 전처리를 거친 걸 LLM으로 제이슨 형태로 이제 추출을 하고 그 제이슨을 포스트 베일로 넣든지 포스트 브레이 넣어서 그거를 이제 LLM에 나중에 리포트 만들 때 제이슨 형태를 바로 피딩을 해 주든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뭔가 제이슨 형태를 한번 내가 저장을 하면 그 제이슨을 한번 잘 가공을 해가지고 파인콘이나 이런 데 한번 넣어줄 수 있든지 그 두 가지 패턴 중에 하나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 3 11:21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100개를 추출한다고 하면 제이슨이 한 100개 정도 나올 건데 그럼 그 제이슨 100개 정도라고 하면 그거에서 중복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뭔가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카운터를 산다든지 거기서 아니면 거기서 LLM을 통해가지고 뭘 또 전체를 한번 한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한번 하는 게 제일 성능이 잘 나올 거예요.

참석자 3 11:51

이거랑 이제 그러면 이걸 RNR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어요?
저번에 한 번 나눴었잖아요. RNR 그때 그걸 이야기하셨어요.
강사님한테

참석자 2 12:01

네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 톨 이제 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드렸는데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인원 의존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긴 했거든요.

참석자 3 12:13

근데 인호님은 초반에 제가 제일 큰 스트럭처만 자라고 하고 다 하나의 에이전트랑 톨을 다 담당하게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다시 또 이야기를 하셨어.

참석자 1 12:23

저는 톨 말고 지금 다른 거 달리고 있긴 한데

참석자 3 12:26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참석자 2 12:31

에이전트 안에서도 톨이 여러 개 나뉘잖아요. 그 톨을 하나씩 말다 보니까 토탈 에이전트 하나는 다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석자 1 12:41

얻어가는 게 좀 부족하다

참석자 3 12:45

이거 어떻게 나와요?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톨을 만들면 톨을 기반으로 이제 에이전트를 해가지고 그 API를 호출할 거잖아요.

지금 API 형식으로 다 배포를 할 거고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제가 지금 지금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참석자 2 13:06

에이전트 안에 톨들이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상태는 그 톨들을 역할을 배분했는데

참석자 3 13:11

한번 다시 그 플로우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참석자 1 13:13

에이전트 하나 짚어가지고 그 에이전트 하나 톨들 전부

참석자 5 13:16

배라고요. 전부 없어

참석자 3 13:17

근데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 바뀌면 나머지는 뭐예요?

참석자 1 13:21

그래서 에이전트

참석자 5 13:22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로 해가지고

참석자 3 13:24

추가를 해냈고요.

참석자 2 13:25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떠나 지금 에이전트가 3개인데 하늘이 b잖아요.

그분 a를 더 늘리라. 분위기를 더 늘리라고 해가지고 다 하나씩 에이전트를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참석자 3 13:33

그거는 네 제 생각에는 이걸 만들고 딥 다이버를 하게 되면 네 안에서 가지가 더 생기거나 최적화해야 될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더 늘리는 건 좀 너무 억지스럽고 이게 제 생각이예요.

강사님 말을 따라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면 좋겠는데 일단 한번 그거 한번 나 지금 RNR을 나눠서 강사님한테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 1 13:56

내 카톡 커준 줄 알았어 잠깐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나

참석자 3 14:09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참석자 2 14:11

지금 여기서 이 부분들이 다 투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참석자 3 14:19

네네. 그럼 누가 누가 뭘 말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면 하면 될까요?

참석자 2 14:22

저는 일단은 최 최근까지는 비주얼레이션 데이터 이 부분 툴을 일단은 저희가 구축한 포스트 그레이 연결을 하는 걸 gp2 환경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에이전트 툴로 만들고 있었어요.

참석자 1 14:40

그리고

참석자 3 14:43

그니까 펌플러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피터 환경 네

참석자 1 14:46

그 뭐냐 GP 환경에서 툴 일단은 직접 실행해 보면서

참석자 3 14:50

제대로 만들어 테스트를 했다.

참석자 2 14:54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여기 툴 안에 적용시키는 걸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돼가지고 그리고 강사님께서서는 꼭 이게 어떻게 되는지 로 랜드 스튜디오 같은 걸로 꼭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번에 개발한 다음에

참석자 1 15:08

뭐냐 저거 시각화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퍼플렉시티 같은 거 보니까 그냥 파이썬 플로티로 코드 작성한 다음에 이미지로 내뱉더라고요.
그냥 그래프 같은 거를

참석자 3 15:20

응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었잖아

참석자 1 15:22

코드 그렇죠 근데 제가 전에 했던 말은 이게 프론트 상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걸 그래프로 그려주는 게 일단 더 뭐 이쁠 수도 있으니까

참석자 3 15:35

근데 대부분 코드 인터프린트로 해요. 그러니까 파이썬 REPL 같은 같은 패키지를 그냥 툴로 하나 띄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툴로 이제 그냥 파이썬 코드가 들어오면 그걸 바로 실행시킬 수

있게 해놓기도 하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텍스트 스쿼어를 한 뒤에 나온 걸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그 이미지를 떨어뜨리면 그거를 이제 뿌려주는 형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참석자 1 15:59

그래프 그리는 것도 아예 그냥 플루티로 해당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코드를 알아서 작성을 하게 한 다음

참석자 3 16:07

네 그렇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텍스트 SQL에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미 데이터들이 떨어질 거고 그럼 그걸로 이제 코드를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되거든요.

참석자 1 16:19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드를 생성해가지고 그 코드를 무조건 PH 파일로만 마지막에 리턴하게 한 다음에 그 리턴 된 거를 바로 뿌려주는 거죠.

참석자 2 16:31

덴바스 그런 차이

참석자 3 16:33

그럼 파일을 떨어뜨려서 거기에 뿌려줘도 되고요.

그 파일이 이제 자꾸 덮어지는 구조로 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개인 회원들의 세션으로 그 사람 것만 이제 떨어지는 구조라도 상관이 없고 아무튼 이게 지금 그럼 RNR이 지금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참석자 1 16:53

레그 쪽이 태수 님 아니었나?

참석자 3 16:55

여기 지금 이거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참석자 2 16:58

이 부분이 태수 님이랑 규희 님도 혹시 하셨나요? 네 규희 님은 세션 쪽 하셨나요?

마지막에

참석자 1 17:05

지금 저

참석자 5 17:07

툴 툴 말하는 거는 툴 어디를 하는 툴 요거 이제 서모라이즈에다 하면 돼.

참석자 2 17:13

서머 라이트면은 레그 쪽인가요? 일단 지금 레그 쪽에 두 분이 계시고

참석자 3 17:20

그냥 여기에 옆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지금 여기에

참석자 3 17:29

그리고 레그 쪽이라고 하지 말고 다 툴이에요. 다 툴리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 툴이기 때문에 레그는 레그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다 툴입니다.

참석자 1 17:41

각 문서에 대한 그 레그를 그냥 함수 따로따로 구해놓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네임 스페이스 알아서 채우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 이게 지금 문서 같은 게 네 가지 종류로 단 메인 스페이스로 프로젝트 HR 폴리

참석자 3 18:00

네임 스페이스는 지금 파인 콘의 용어를 쓰신 거죠.

정확하게는 밀버스는 그걸 컬렉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임 스페이스 단위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참석자 1 18:11

그럼 2를 레그 2를 4개만 만든다는 얘기가 할까요?

그쵸

참석자 3 18:16

레그 베이스 툴 자체가 이 툴은 이 네임 스페이스만 바라보고 이 네임 스페이스만 바라보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참석자 1 18:23

아니면은 툴의 네임 스페이스를 인풋으로 받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 하나로 끝나지 않나요?

참석자 3 18:33

그게 이제 필터링 방법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필터링 조건을 줘가지고 이 툴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 문서가 만약에 한 프로덕 한 네임 스페이스만 전체 한 네임 스페이스마다 예를 들면 10억 개예요.

그럼 40억 개 중에서 필터링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컬렉션을 나눠놓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참석자 3 19:11

투표 다 하셨어요? 네 그건 다 하셨습니다. 성실한 청년인데

참석자 1 19:17

올 사람이 없던데

참석자 3 19:18

네 뽑을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무효표 무효표로 무효표 와야지 그래도 무효표를 던지러 간다는 게 대단하다.

그렇죠 피니까 나 있으면 무효표 안 나갈 것 같은데 가서 저도 저는 사진 찍혀 있어요.

사진 찍고

참석자 6 19:39

아예 안 가면은 애네 안 갈 놈이다 하고 신경을 안 쓸 텐데 뉴욕 하면은 일단 갈 의지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약간 잡을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것 같아서

참석자 3 19:51

근데 뭐 무효표를 던지든 안 던지든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투표 안 한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지 그래도 무효표를 던진다는 것도 대단하다.

난청이었네. 나였으면 안 갔을 것 같아.

참석자 2 20:13

일단은 지금 이렇게 4개 있는데 그 툴 이름으로 명시를

참석자 3 20:17

잠깐만요. 위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지금 이 서브라이즈 툴이라는 게 무슨 뜻이
에요?

지금

참석자 2 20:24

요약하는 그런

참석자 3 20:28

근데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

참석자 1 20:29

어차피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서머라이즈 자체는 레그에서 LDM을 받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요약해 주긴 할 텐데

참석자 3 20:42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게 4개로 지금 데이터셋을 나눠놨죠.

참석자 1 20:47

어디 보자

참석자 3 20:48

그러면 이 4개의 데이터셋은 누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참석자 2 20:51

데이터 작업 파인 코드에 들어가는 코 님이 이원 다 집어넣으셔가지고 미리 그래서 그 타인콘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랑 연동을 해서 이제 에이전트 사용에서 툴들이 융합하는 기능이 작동하는지 그거를 하고 계시거든요.

참석자 3 21:07

이렇게 나누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다 파인 콘의 네임 스페이스 접근하는 법은 다 아시죠?

다른 분들

참석자 1 21:22

지금 레그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보셨죠?

파인 폰 네임 스페이스 페이스 접근이 뭐예요? 뭐냐 파인 콘 쿼리 인덱스 서치였던가 그거 날릴 때 네임 스페이스 는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프로젝트 도큐먼트 넣거나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네 해보셨죠?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건 파이콘 공식 문서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

참석자 3 21:56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축소해 보세요.

이렇게 가면 이게 아마 역할이 애매해질 거예요. 지금 어

참석자 1 22:08

에이전트 2 3에 그냥 2 3 한 명씩 뭐냐 에이전트 2 1 명 에이전트 3 2 명 불고 나머지 에이전트 원에 붙이죠.

참석자 2 22:19

에이전트 3의 두 명은 한 명 나머지는 에이전트 원에

참석자 1 22:23

에이전트 1이 느리게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참석자 3 22:26

지금 램 그래프는 다 가르쳐 드렸어요.

참석자 1 22:29

맨 그래프 뭐냐

참석자 3 22:31

라우터 컨디셔널 엣지 같은 거 다 쓰실 줄 아시죠?

참석자 1 22:34

컨디셔널 했지 일단 어떻게 써져 있는지는 보여드렸었는데 정확히는

참석자 3 22:44

사실 지금 에이전트 2가 제일 쉽거든요. 에이전트 2가 지금 하나 구현해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이게 이 분기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분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모일 거예요.

네 맞아 네 그 선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지금 이게 좀 애매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약간 애매한 단계인 것 같은데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위로 가겠조

참석자 3 23:17

혹시 지금 이 단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이거 어떻게 구현하면 되겠다라고 지금 아이디어가 드시는 분 있으세요?

이 에이전트 2요? 예 지금 태수 님이나 경규 님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제 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어떤 지금 이거 이 그림에 이 에이전트 2번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커리가 들어오면 이 프로젝트 지금 네임 스페이스를 참고할지 HR 플리시 네임 스페이스를 참고할지를 찾고 그 뒤에 찾은 결과를 가지고 서브라이즈로 갈지 엔셀 도큐먼트로 갈지에 대해서 이 전체 플로우가 좀 이제 어떻게 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참석자 4 24:20

애네 둘을 근데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참석자 3 24:23

어떤 거요? 서머라이즈랑

참석자 4 24:25

소리랑 서머레

참석자 3 24:26

예 그렇죠

참석자 4 24:27

엔터 자체를 그냥 서모라이즈는

참석자 3 24:30

서머라이즈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에 대한 소개가 막 50개예요.
50장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프로덕트에 대해서 예를 들면 AWS 클라우드에
서 세일즈 메이크 스튜디오가 하는 게 뭔지 요약해줘.
그러면 그게 뭔지 알려주는 건가 아니면 세일즈 뱅크 스튜디오에서 이런 기능
이 있는데 이건 뭐야 이런 거는 다른 거죠.

참석자 3 24:58

그러면 일단 냉 그래프에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참석자 1 25:03

네 일단은 다들 일단 간단하게 리액트하고 슈퍼바이저 어떻게 돼 있는지 하고
그거를 스테이트 그래프로 구현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일단 알고

참석자 3 25:17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에이전트 툴을 가지고 인호 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툴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호 님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대략 보이잖아요.
그쵸 커리가 들어오면 컨디셔널 엣지를 통해가지고 일단 어디 네임 스페이스로
갈지 정하고 그다음에 나온 걸로 이제 마지막에 컨디션 액체를 타가지고 이게
서마이 툴로 갈지 이걸로 갈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략적으로 이 아키텍처 스켈레톤만 짜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참석자 1 25:46

근데 저거를 굳이 라우터로 안 하고 그냥 툴 4개를 알아서 에딩 고르게 하면 되
지 않을까 예를 예를 들어서요.

그냥 서치 프로덕트 서치 HR 폴리시 서치 퍼스팅 도큐먼트 그냥 각각 툴 선언
해 놓고 그거 해당 에이전트에 프롬프트에다가 어떻게 쓰는 해당 함수 어떻게
쓰는지만 적어놓고

참석자 3 26:12

그러면 크리에이트 리액트 에이전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서브라이즈로 갈
지 도큐먼트로 갈지 또 툴을 하나 더 구출해야 되잖아요.

참석자 2 26:22

여기 지나가서

참석자 3 26:25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프로덕트 안에도 이 두 개를 따라 되고 폴리시 안에도
두 개를 따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같거든요.

참석자 1 26:32

그러면은 서머라이즈 서머라이즈가 굳이 필요할까요?

레그 정보를 다시 에이전트로 넘겨서 에이전트로 요약하게 하면 되는 거고

참석자 3 26:44

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뒤로 돌아가도 상관없지만 여기서 그냥 엔드로
끝날 수가 있으니까 엔드로 돌아

참석자 1 26:51

엔드로 갈 거면은 여기 마지막에 서머라이즈 노드 하나 추가해서 거기서 LLM
유력하게 하고 바로 엔드로 가게

참석자 3 27:01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 이 꼭 이 두 개가 아니어도 하나라도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게 나올지를 한번 지금 프로덕트 PDF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하나 열어보실 수 있어요? 거의 다 몇 장이에요?

참석자 4 27:18

좀 많이 다른데

참석자 3 27:20

많이 달라요. 제일 긴 거 한 몇 장 정도 돼요

참석자 3 27:32

이게 지금 몇 장이지

참석자 1 27:33

제가 그걸 일일이 따와가지고 몇 장이라고 하기가 조금

참석자 2 27:38

다른 확장들을 보여드릴까요?

참석자 3 27:40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은데

참석자 1 27:42

긴 건 길고

참석자 3 27:44

거 엄청 길어요.

참석자 1 27:47

엄청 또 엄청 길지 않은데 천 도칸 넘는 걸 못 봤는데 제가 준서를 엄청 엄청 길지는 그렇게

참석자 2 27:54

준 거는 안 했던

참석자 3 27:55

그래요 뭐냐 그러면 그냥 요약을 빼고 QA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너무 길지 않아.

참석자 2 28:03

근데 요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내 문서 데이터 중에 회의록 데이터들이 일단 그런 대로 있지만

참석자 3 28:08

지금 여기에 지금 있었죠

참석자 2 28:10

네 회의록 회의록 같은 거 요약이 되면 그렇죠

참석자 3 28:13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만 그럼 나눠도 되겠네요. 그런 거를 지금 좀 정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날이 잘 안 나눠져 있네요.

네 이걸 먼저 나누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 3 28:32

지금 한번 나누죠. 이 아까 거기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흐름도에서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제일 간단한 거 그러면 방금 여기에 지금 회의록이 어디 있어요?

참석자 2 28:45

이 프로 다큐먼트였습니다.

참석자 3 28:46

거기에만 그러면 요약을 붙여놓고요.

참석자 3 28:55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회의 이런 이야기를 한 회의가 있냐 이렇게 QA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이 세 번째 것만 두 개가 돼 있고 나머지는 그냥 QA로 가도 상관이 만약에 문서가 프로덕트 문서가 길지 않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참석자 2 29:16

저는 근데 이 두 번째 다큐먼트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툴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이

참석자 2 29:26

이 스트랙트 인포메이션이랑 랜서 다큐먼트랑 차이점이 있을 거야 이게 이거는 다 버려도 될 것 같아 문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해 주는 거고 이거는 그냥 정보 추출하는 내용인데 이게 똑같은 기능이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에는 지금 철네네 멘토님한테도 얘기해도 되는데 저희

참석자 1 29:48

팀원분들은 건데 처음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보고 기본적으로

참석자 2 29:55

스트리 그냥 작성해 주시고 조항 출드도 계속 바뀌어야 되고

참석자 6 30:01

익스트랙트 처야 될 것 같은데

참석자 3 30:05

그냥 엔셀이랑 서브라이즈로 가고 그냥 어떤 거는 엔셀 맞고 어떤 거 익스트트 서브라이즈 하지 말고 그냥 두 개 분기에 아무 거나 그냥 편하게 붙을 수 있게 만들어 놓죠.

그냥 지금 다시 한 번 쳐보실래요? 지금 이게 복잡하니까 이렇게 가면 그 흐름도 다시 한번 열어보셔서 그냥 이 전체 마지막이 뭐 서브라이즈 하거나 엔서를 하거나로 그냥 해놓으시고요.

사각형 두 개로 네 이거를 아까 말했듯이 규희 님이랑 태수 님이 두 분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하면서 만들어보세요.

모르는 건 이제 인호 님이랑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서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게 엄청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예요.

해보시면 금방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인호 님이 대략적으로 랭 그래프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거기 그 정도로도 다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네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이 두 개를 일단 이번 주 목표로 삼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야기를 해보시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참석자 1 31:18

근데 뭐냐 저희가 웬만한 툴들은 MCP로 띄울 생각이

참석자 3 31:25

네 그쪽에

참석자 1 31:26

NCP로 끼우면은 그게

참석자 1 31:36

MCP로 띄운 툴 내에서 아예 그냥 서머라이즈 부분하고 문서 검색 부분을 합쳐가지고 띄워놓으면 될까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뜻이에요? 그냥 뭐

참석자 3 31:52

서브라이즈 해 주는 그냥 툴 하나 그냥 그거 하나 툴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석자 1 31:57

네 근데 MCP로 띄워놓고 하려면은 이거 노드 2개를 붙여놓은 상태를 하나의 도구로 해가지고 그냥

참석자 3 32:07

그거는 지금 이 에이전트 2용 툴을 따로 호출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에이전트 원 것까지 참여해가지고 그 툴을 막 호출하
고 이러면 좀 난접할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은 제 생각인데 이 에이전트 2 자체
를 그냥 하나의 MCP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참석자 1 32:35

LG전자 2 자체 그냥 두 자체를 MCP로 해가지고 슈퍼바이저 쪽이 MCP로 구성
된 에이전트를 호출하게

참석자 3 32:47

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에이전트 2는 결과적으로 엔솔로 가든지 서머라이즈 가
든지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흐름을 그냥 우리가 툴로 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 필요는 없고 그렇죠
그냥 하나의 플로우로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컨디셔널 엡지라든지 크레이트 리
스트 체을 마지막에 붙여 놓는다든지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하나로

참석자 1 33:07

호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아예 저희 에이전트 3개 자체를 다 그냥 MCP로

참석자 3 33:13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참석자 1 33:15

그러면은

참석자 3 33:17

그러니까 맨 마지막 이 그냥 그 툴만 호출할 수 있게

참석자 1 33:24

저희 그러면 a2a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참석자 3 33:28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서

참석자 3 33:42

이 두 개를 MCP를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스트럭처만 한번 둘이 쿼리를 날려가지고 예를 들면 재택 근무 KT의 재택 근무 정책이 어떻게 돼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큐인 님 여기 어떻게 플로우가 지금 다 따라가야 돼요?

이 흐름을 흐름만 말하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KT에서 재택근무 정책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하면 어떻게 이 흐름이 흘러가야 돼요?

여기서 에이전트 2에서

참석자 2 34:18

일단 어떤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참석자 3 34:25

네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가면 돼요? 재택근무 정책이라고 하면

참석자 1 34:31

HRF

참석자 3 34:33

네 글로 가서 알려줘라고 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마지막 결과물 네 그렇게 가면 돼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아까 뭐 뭐 했었지 4월 19일 날 회의록에 대해서 요약해줘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

참석자 4 34:52

회의록 접속해 가지고 다시

참석자 3 34:55

여기 세 번째죠 세 번째로 갔다가 위에 서브라이즈로 그런 식으로 하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쿼리가 그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자동으로 처리되게 하는 부분을 두 분이서 한번 나 이번 주까지 한번

참석자 1 35:08

그러면 그냥 만들어보세요. 리액트 에이전트 없이 구성해 보는 거야.

참석자 3 35:12

어 리액트를 쓰셔도 되고요. 마지막 툴을 리액트로 불러도 되고 근데 사실 이 리액트라는 것들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스테이트 그래프로도 리액트를 구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굳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만들려고 그냥 스테이트 그래프로 만들 것 같거든요.

디스크 스트 라이브러리

참석자 1 35:33

그러면은 이 선 하나하나가 컨디셔널 액체인 거죠.
종류 이렇게 될 선택할지

참석자 7 35:43

질문으로 해가지고 이쪽 쪽 어떻게 정하면

참석자 2 35:47

스테이트 그래프 징을 여기에서 이제 슈퍼바이저로 다시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에이전트에서 끝나는 거

참석자 3 35:52

슈퍼바이저로도 보낼 수 있어요.

참석자 2 35:54

보낼 수도 있긴 한데 그 애드 포인트 끝내는 것도 가능해지는

참석자 3 35:57

그러니까 스테이트 그래프의 특징은 네 스테이트를 볼 수가 있어요.

스테이트 스테이트가 딕셔너리 형태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상태에서 쿼리가 뭐였는지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 지금 내가 어떤 쿼리를 뭐 예를 들면 쿼리를 1~2치먼트 해서 보면 쿼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문서를 뽑았는지 이것을 트래킹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스텝마드로

참석자 1 36:19

저희 랭 그래프 스튜디오로 볼 수 있는 거랑 똑같아요.

리액트 에이전트도 결국에 스테이트 그래프여서

참석자 3 36:26

그리고 스테이트 그래프를 한번 짜보면 리액트 에이전트를 두 분이 그냥 이거는 이 부분 하면 좋겠다라는 거는 더 쉬우니까 그래서 스테이트 그래프를 한번 먼저 짜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참석자 1 36:37

스테이트 그래프를 그림 여러 명이 붙어서 한다는 거네요.

참석자 3 36:40

일단 한 분이서 하면 좋은데 오히려 더러워질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이서 머리를 맞대고 이걸 그냥 구조랑 이런 걸 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게 한 분이서 말으면 좋은데 뭔가 서로 여쭙봐야 될 참고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참석자 1 37:04

그 뭐냐 코드 에이전트 쪽은 리액터로 안 하면은 너무 어렵지 않나요?

참석자 3 37:12

그것도 분기를 내가 다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저는 만약에 프로덕트 레벨로 가면 크리에이터 리텐션 에이전트는 절대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케바케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리에이트 디저트를 여러 번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짜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했듯이 이런 하면서 이제 디버깅 같은 게 힘들고 스테이트를 볼 수

가 없으니까

참석자 1 37:40

램 그래프 스튜디오로 보면은 다 뜯어지던데

참석자 3 37:46

뜯어진다고요. 네

참석자 3 37:53

잠깐만 1번 다시 한 번 보여주실래요?

참석자 3 38:01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크레이트 에이전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인호 님 생각은 지금 코드 서치로 가면 코드 서치에서 또 길 리파지토리나 나
밑에 또 두 가지 분기가 있잖아요.

그쵸? 이런 분기들에 대해서는 따로 안에 또 라우터를 또 만들어 가지고 하실
거예요.

참석자 1 38:21

뭐냐 저희 윈도우 스프나 커서에서 LM LLM이 이 도구를 사용할게요.
하면서 사용자한테 허락 맞고 그런 식으로 좀

참석자 3 38:34

휴먼인드 루프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크리에이트 리전트 그러면 이 안에 들어
가면 이 안에 함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쵸 그렇쵸 이 함수에서 예를 들면 이걸 호출할 때 저걸 호출할 때 그 창을
내놓을 거라는 거예요.

참석자 1 38:50

채팅창에 실행 함수 함수 기능 대충 적어놓고 이 함수를 실행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허락 맞게

참석자 3 39:00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이제 코드 서치에 들어갔잖아요.
그 코드 서치 함수 안에서도 커넥트 리액트 에이전트를 만들 거라는 거죠.

참석자 1 39:07

코드 서치 코드 서치 안에서도 코드 서치가 지금 5시간 텐데

참석자 3 39:19

지금 저희들이 분기가 여러 개잖아요. 안에서

참석자 1 39:21

코드 서치는 코드 임베딩 해놓은 거 코드 크 위치하고 코드 청크 내용을 다시
리액트 에이전트 상위로 넘겨주면 되지 않을까요?
케이 10개 해가지고 5개 정도 해가지고 코드 청크하고 원본 코드 s3 위치 그런
거 정보만 LLM한테 다시 넘겨주면 되잖아요.

참석자 3 39:45

LLM으로 넘긴다는

참석자 1 39:46

상위 리액트 에이전트 로그인한

참석자 3 39:48

거기서 나온 결과를 다시 올려가지고 그럼 다시 한 번 더 리액트 에이전트를 타게 한다는 거죠.

참석자 1 39:54

예를 들어서 해당 어떤 파이썬 어떤 기능에 파이썬 스크립트가 있는데 이것을 자바로 바꿔줘 하면은 한꺼번에 저희가 두 개 함수를 써야 되잖아요.

네 첫 번째 하고 세 번째 거 그런 식으로 여기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해당 리액트 에이전트로 다 처리해버리는 게 바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석자 3 40:17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대신 이제 크리에이트 레이트 에이전트를 많이 써보셔서 알겠지만 쿼리를 날리면 한 번에 안 끝나거든요.

두세 번 막 날려요. 속도가 아마 더 느려질

참석자 1 40:30

수도 있을 거예요. 멀티 좀 다목적 쿼리 같은 걸 처리하려면 릴리트 에이전트가 가장 낫지 않나 싶은 거죠.

참석자 3 40:40

예를 들어서요.

참석자 1 40:42

한꺼번에 두 개 기능성의 어떤

참석자 3 40:45

한꺼번에 두 개 인 거 쓰는 거야. 그거 지금

참석자 3 40:52

그거는 코드

참석자 1 40:53

서치라고 돼 있긴 한데 도큐먼트도 막 어떤 레포지터리 같은 거 보면은 각각 폴더 여러 개 있고 그 폴더마다 리듬 같은 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처리하려면 일단은 도큐먼트 지금 인풋 도큐먼트 인풋 도큐먼트가 그런 거 잠깐만 그거 서치

참석자 3 41:27

만약에 이게 툴들로 리스트화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맨 처음에 코드 서치로 안 가고 바로 그냥 캔버스를 분류해 버린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참석자 1 41:38

툴 데코레이터 찾아보니까 아예 그 해당 툴을 호출하면은 그 툴이 바로 리스폰스로 가게 할 수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다시 리액트 에이전트로 가는 게 좀 안 좋다 싶으면은 해당 약간 데코레이터 써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참석자 3 41:59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리액트 에이전트를 하려면 이 지금 6개 이 6개를 다 툴로 말아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로 디스크립션을 잘 적으면 그게 해당할 수가 웬만하면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프로젝트 레벨로 가거나 이러면 이 뒤에

3개부터 호출할 수도 있잖아요.

뒤에 3개요. 예 그러니까 이 위에 코드 서치 인풋 도큐먼트 코드 컨버전이 아닌
여기 뒤에 저희들이 이제 이 분기가 지금 이 하나의 벽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런 걸 먼저 호출을 할 수도 있죠. 이게 다 툴들로 말아도

참석자 1 42:41

그런 웬만한 시나리오 자체를 다 프롬프트 안에 넣으려고 했긴 했는데 어떤 상
황에서 어떤 툴부터 호출해야 되고 그런 거를

참석자 3 42:50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참석자 3 42:58

그러면

참석자 3 43:04

사실 아직도 저는 LLM 성능을 많이 의지하는 편이 아니어 가지고 사실 이게 왜
냐하면 고객들이 이 부분을 잘 안 좋아하더라고요.

안 좋아하고 왜 이게 쿼리를 두 번씩 날려요. 왜 바로 이게 속도가 더 늦어요.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호 님이 말한 레벨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예 1번 에이전트 2번 에이전트 크리에이트
레이트 에이전트를 그냥 두 개를 만들어서 사용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참석자 1 43:39

윈드 서프 같은 거 돌아가는 거 보면은 리액트 에이전트에 좀 가까워 보이던데

참석자 3 43:44

근데 그거를 모든 그래프를 자기가 다 구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그냥 땅 호출해가지고 그냥 이거에 다 그냥 명목적으로 기대버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그 분기도 어떻게 처리할지도 이제 정하고 하는 거니까

참석자 3 44:03

일단 그러면 1번은 그런 식으로 한번 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번이요. 방금 말씀해 주신 걸로

참석자 1 44:10

2 3번은 일단은 스테이트

참석자 3 44:13

저는 여러 가지 다 혼용해서 한번 짜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장단점도 확실해지고 편한 거는 또 더 편하게 어필도 할 수 있으니까 인호 님이 그런 걸로 또 발표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번에 보여주기 위해서 1번은 스테이트 리액트 에이전트로 하고 2번은 스테이트 그래프 방식으로 리액트 에이전트 방식으로 좀 느낌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했다.

근데 해보니까 크리에이터 레이어서 이런 부분에서 엄청 좋더라.

근데 스테이트 그래프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편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참석자 1 44:43

그럼 저희 지금 에이전트 23번 RNR을 지금 확실하게 정하고

참석자 3 44:48

네 지금 그러려고 그래서 2번은 아까 말했듯이 큐민 님이랑 선수 님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뼈대를 이번 주까지는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다음에 3번은 지금

참석자 2 45:02

제가 비주얼이

참석자 3 45:04

두 분이 같이 하고 1번은 그냥 인호 님이 일단 한번 만들어 보세요. 1번을 제가요. 네 일단 일단 뼈대만 뼈대만 그래서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 보는 걸로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그게 막 완벽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방금 우리가 막 말하면서 한 1~2%씩 싱크가 안 맞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짜보면 그게 맞아가거든요. 그게 이 목적이었군요 하면서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토요일 날 맞춰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 1 45:32

일단은 스테이트 그래프로 구현만 다들 해놓으시면은 합치긴 편하니까 그러니까요.
스테이트

참석자 3 45:39

일단 2번 3번 하시는 분은 다 스테이드 그래프 하세요. 일단 저는 그리고 나중에 1번 거를 이호 님 거 보면서 그냥 저거 왜냐하면 2번 3번보다 더 간단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저런 방식도 있구나라고 이제 공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한 다음 주까지나 하면 이걸 툴을 딥 다이버에서 좀 만들어 놓고 큰 에이전트를 붙이면 되겠다 그러면 시연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 주까지는 시연용으로 전체 흐름을 큰 에이전트로 다 붙여놓고 중간 발표 끝나면 이제 MCP로 다 말아가지고 하는 걸로 어때요?

참석자 1 46:24

일단은 한 냉 그래프로 일단 한 스테이트 그래프로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MCP로 따로따로 띄어

참석자 3 46:31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영상 딸 거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냥 그래프 모델 그래프 있잖아요.

제일 슈퍼바이저 되는 거 그걸 만들어 놓고 그냥 방금 이 세 분들이 만든 걸 다 참고를 해서 그냥 호출하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중간 발표 때 말한 거죠. 지금 이게 다 되는 방식이다.

근데 우리가 할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프로덕트 레벨로 가려면 아니면 프레임워크가 바뀌더라도 이게 툴이 콜 에이블한 방식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

그때 우리가 다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뭘 쓴다 우리는 MCP를 쓸 거다.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우리는 지금 다 붙여놓고 거의 다 만들어놨지만 결과적으로 프로덕트 트랩을 거기에서 다 MC 프로 말아놓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중간 발표 때는 거의 다 된 것처럼 보여주고 그다음에 최종 때는 이제 MCP로 말아진 걸로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 되죠.

참석자 3 47:22

그렇다고 막 MCP 찬양 노동자처럼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불편함 때문에 MCP가 무조건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MCP를 할 거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심사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현업에서는 약간 무조건 이게 짱이야 이러는 걸 그 말이 딱 들리자마자 그걸 공격하거든요.

보세요. 챗gpt도 지금 완전 나락 까고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구글이 막 하늘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왜냐하면 아직 GPT 5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GPT 5가 이제 쓰레기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오픈ai가 이제 힘들어지죠.

참석자 1 48:02

GPT 파이브로 입 털기 시작한 게 23년부터인데 좀 늦었지 않아요.

참석자 3 48:06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메타가 이번에 난리가 났잖아요.

메타가 이번에 지금 70%가 라마 주요 인형이 70%가 나갔거든요.

미스트라인 쪽으로 나가고 다 그랬기 때문에 진짜 자꾸 기 모으는 거는 두 가지예요.

진짜 필살기가 있거나 아니면 진짜 망했거나 끝장 났거나 근데 뭐 설마 그 사람들이 뭐 저는 뭐 하나 보여줄 것 같다고 하는데

참석자 1 48:38

GPT 4까지는 약간 나쁜 정도인데 GPT 5는 괜찮다라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샘 알트 뭐니 그래

참석자 3 48:46

지금 우리가 a자 레벨로 말하잖아요. 6단계가 전체 자율화인데 우리가 지금 최

미나이 나오고 하면서 3단계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3단계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25%예요.

절대적 그러니까 100% 중에 25% 저번에 제가 말했던 그 스탠보드 연구에 따르면 자기들끼리 스타트업 만들어졌는데 25%의 일밖에 못하는 것처럼 한 4분의 1 쿼터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1년밖에 안 걸렸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거의 5단계까지 가고 이제 다 일자리 있고 이제 기초수급 받으면서 특이점이 오지 않을까요?

특이점이 진짜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나눌게요.

네 나누고 야 이거 내가 이 부분이 해야 이런 거 하지 말고 두 분이서 브랜치 공유해가면서 모르는 부분을 다 공유하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내가 저번에 RNR을 다 나눠줬는데 그 RNR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참석자 3 49:45

다 지금 정우 님이 친다고 치지만 또 드롭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거를 좀 잡고 가는 걸로 하죠.

참석자 1 49:54

두 분이서 한 분의 인지 쓰시는데요.

참석자 3 49:57

두 분이서 한 브랜치 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궁금한 점들이 생길 거고 그러면 뭐 인호 님이나 저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인호 님이 정리해서 저한테 물어보든지 하는 것도 상관 없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2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좀 쉬시고 여러분 근데 식사는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끝나고 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저 화장실.

clovanote.naver.com

새로운 노트

2025.06.03 화 오후 6:21 · 58분 7초

이태수

참석자 1 00:00

다 쓴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 조사에 좀 와우 팩터가 있어야 돼요.
좀 들으면서 실제로 들어보니까 다른 부분에 저런 것들이 페인 포인트이긴 하
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게 들 수 있도록 그런 조사가 돼야 돼요.

참석자 2 00:16

그럼 뉴트 분석의 내용이 좀 더 와우 포인트가 있어야 돼.

참석자 1 00:18

좀 더 디테일하고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 간단하게 그리고 너무 어려운 단
어를 쓰면 안 돼요.

무조건 처음 모르는 사람이 앓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나 이 발표를 듣
는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참석자 1 00:45

서 그래서 개요는 크게 한두 장 두세 장으로 끝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른 팀들 막 들어보면 이거에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도 별로 없는 데 여기 중

요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예를 들면 우리 누가 이렇게 선정했어요.

이 이름을 그리고 이 기능은 누가 있고 이 기능은 누가 있고 어찌라고 이러면
그래서 어떻게 구현했는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술 스택은 우리 이거
썼고 이거 썼고 이거 막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어 그냥 장표 하나 보여주고
간단하게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이 사용했습니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돼요.

참석자 2 01:23

에이전트 같은 거 그냥 이런 이런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참석자 1 01:27

기술 스택이랑 에이전트는 또 다르니까 이제 진행해서 개발 개발 이 일정표도
개요 안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이 진행 그다음에 진행 현황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참석자 1 02:00

아이고

참석자 1 02:05

지금 이제 최종 프로젝트 수행 내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프
로젝트 아키텍처 프로젝트 세부 추진 범위 프로젝트 상세 수행 내용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대중 프로젝트 네 수행 내용 해가지고 그 안에 아키텍처 추진 범위 상세 수행
내용 이런 식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참석자 2 02:39

추진 내용이 상세 어떤

참석자 1 02:44

아키텍처를 아키텍처 하나 보여주고 그다음에 세부 추진 범위 그다음에 상세 수행 내용 그다음에 평가 한 이 정도 있었죠.

그거를 지금 섹션으로 나눠서 이것들을 집어넣어 주세요.

안에다가 채널부터 수행 내용 안에다가 카테고리들 만들어서 추진 내용 그다음에 아키텍처 그다음에 세부 추진 범위 추진 내용은 빼고 그냥 아키텍처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세부 추진 범위 그다음에 상세 수행 내용 그다음에 평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안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키텍처는 아키텍처 페이지를 보여주면 되고

참석자 2 03:38

아키텍처에 혹시 흐름도도 들어가

참석자 1 03:40

네 그 두 개 다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장씩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전체 이렇게 쿼리가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전체 이 쿼리가 들어왔을 때 AWS 이런 관리를 하고 이게 툴들을 이렇게 호출한다.

그래서 실제 이 어떤 식으로 되는 흐름도를 보여드리겠다 해가지고 에이전트를 꺼내가지고 에이전트 흐름도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 추진 범위로 넘어가가지고 전체적으로 데이터 준비 그다음에 에이전트 파이프라인 구축 UI 개발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이제 상세 수행 내용을 보여주겠다 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가 방금 말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면 돼요.

데이터 준비에 분석은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구축은 어떻게 했고

UI 개발은 어떻게 했고 평가는 어떻게 했고

참석자 2 04:25

에이전트 흐름도 그러면은 그러면 앵글레프 스튜디오를 보여드려야 될 거잖아.

참석자 1 04:29

그거를 랭 그래프 스튜디오를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우리 아까 만들었던 흐름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른 거는 투명도 에이전트 1번을 설명할 때 2번 3번은 투명도를 한 70% 해가지고 흐릿하게 보여주고 1번을 강조하고 2번을 할 때는 2번을 해가지고 다른 거는 흐릿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면서 이제 상세 수행 내용을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참석자 1 05:0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석자 1 05:10

이건 제가 만든 건데

참석자 3 05:13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참석자 1 05:15

이렇게 전체 오버 뷰를 보여주고 이렇게 아키텍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아키텍처를 이렇게 강조를 해 이 아키텍처는 이런 식으로 짜져 있다.

흐름도가 그래서 데모 보여주고 2번 거 보여주고 그다음에 2번 거의 흐름도랑

이제 결과 보여주고 3번 거 보여주고 3번 거에 이렇게 해서 데모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참석자 1 05:45

그리고 세부 추진 범위 안에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 데이터 데이터 수집

참석자 4 05:53

그다음에

참석자 1 05:56

데이터 준비 분석 및 전처리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있을 거고 그게 하나고 데이터에 대한 거 2번은 이제 에이전트 파이프라인 구축 2번은 에이전트 파이프라인 구축

참석자 1 06:18

여기는 길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은 UI 왜냐하면 상세 수행 내용에서 그걸 다 설명할 거니까

참석자 2 06:35

전처리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데이터 범위에 들어가는

참석자 1 06:38

네 그렇죠 다음에 UI 그다음에 평가 그래서 데이터 수집은 어떤 어떤 걸 했고 이걸 이런 파이프라인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실제적으로 아까 보여준 그 흐름도에 따라서 이런 에이전트를 만들었고 그 안에는 각종 툴들이 이렇게 매핑돼 있습니다.

그리고 UI는 넥스트 JS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실제적으로 기계적 성적 정량적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상세 수행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그 아키텍처 도의 투명도 보여주면서 첫 번째 에이전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 수집은 이렇게 되고 이걸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엄청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참석자 1 07:40

1번 에이전트 하고 평가하고 1번 에이전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도 흐름도에 따라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했고 이런 걸 다 보여줘야 돼요.

참석자 5 08:01

로그인 꽤 지나니까

참석자 1 08:10

이거를 엄청나게 자세하게 그리고 저랑 이제 저한테 발표를 해보면서 제가 이거는 날리세요.

이걸 좀 더 추가하세요.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평가는 방금 말한 보여줬듯이 1번 2번 3번 에이전트를 이렇게 만들었고 실제적으로 데모도 데모도 아까 제가 흐름도 하나씩 하나마다 데모를 영상을 따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고 실제적으로는 평가를 우리가 총 데이터도 만들고 팀원들까지 내부에서도 생산을 하고 해서 100개 정도 데이터를 생성했고 이거를 루지 스코어나 벡터 시뮬러티를 설정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골든 스탠다드 버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

참석자 1 08:47

근데 이렇게만 하면 그냥 기계적 평가이기 때문에 답변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30개씩 나눠가지고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평가를 해봤

고 거기에 5점 척도로 해서 각각 한 명은 어떤 거는 5점을 준 사람도 있고 3점을 준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걸 한번 봐보겠다.

누구는 5점을 줬고 누구는 1점을 준 게 있는데 이거는 이런 포인트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5점 5점 다 나온 것도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돼서 잘 나왔다.

실제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잘 나왔고 이런 부분은 자꾸 유지한 채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아니면 1점 1점짜리 보여주면서 이거는 아예 우리가 원하는 답변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넥스트 액션에서 어떻게 할지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쿼리 날리면서 이상한 답변 나오잖아요.

그런 거 다 모아놔야 돼요.

참석자 1 09:42

그거 이거 어떡하지 이상하게 나왔어가 아니고 바로 수편차 찍어가지고 어디 엑셀 파일에 저장해 놓는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성능이 자꾸 나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 재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거든요.

참석자 2 10:25

잠깐만

참석자 2 10:41

그러면 여기 저희가 작성했던 내용들을 여기 부분에 집어넣은

참석자 1 10:47

그럼 평가 끝나고 이제 넥스트 액션을 해야죠. 중간 발표니까 밑에 넥스트 액션

을 적어가지고 이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더 할 거고 MCP가 또 말해줄 거고 이런 것들도 할 거다 이런 것들은 여기에 다 설명을 해야죠.

참석자 2 11:00

추후 개발의 내용이

참석자 1 11:02

네 그다음에 이제 위에 올라가시면 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모델을 왜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왜 이런 배경을 하게 됐는지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온프레미스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 그런 것들을 방금 내가 했던 우리 이걸 우리가 왜 이걸 하게 됐는지는 개요에 설명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에이전트 1 2 3 하면서 모델들을 어떤 걸 썼는지를 말을 하잖아요.

그때 모델을 왜 이걸 선택했는지 모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냥 채집 부티 썼다가 아니고 챗gpt에서도 여러 모델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델을 선택한 건 여러 다양한 쿼리를 날렸을 때 이게 제일 잘 나왔고 이걸 평가를 했을 때도 이게 제일 잘 나왔더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실제로 그냥 모델을 쓰면 안 되고 그 모델을 평가해서 이 모델이 제일 잘 나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참석자 2 11:57

그럼 모델 간에 그 결과

참석자 1 11:59

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냥 모델만 호출해가지고 테스트에 돌려버려서 그냥 기계적 평가로 성능 제일 잘 나온 것만 써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모델이든 임베딩이든 뭐든 항상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 점을 가장 크게 보거든요.

참석자 1 12:28

그래서 그 흐름도 이야기하면서 에이전트 1번에는 럼팻에 이런 모델을 올렸고 비용을 줄이려고 이런 모델을 선택을 했고 이 모델도 그냥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여러 모델 중에 비교를 해봤고 진짜 벤치마크 데이터셋이나 우리가 테스트한 데이터셋에서 이런 성능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썼다라는 스토리가 붙어 있어요.

참석자 1 12:55

그건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참석자 1 13:17

일단 지금 적어놓은 거에 조금씩 조금씩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보태 한번 보세요.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끼리 여기에 일단 내용을 좀 보태놓으세요.

그래야 바로 PPT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지금 한번 그렇게

참석자 2 13:31

아니 화면 보이시죠? 그 위에 부분이 지금 멘토님이 이거 알려주신 내용들이고 이제 이 부분들을 방금 멘토님이 알려진 부분에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추가하거나 삭제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참석자 2 13:51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상세 설명하는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참석자 1 14:01

인도의 스타트업 중에 700명이 일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참석자 5 14:05

이거 봤어요. AI 인

참석자 1 14:07

그래서 실제 AI가 개발해 준다고 해가지고 700명이 그때 동시에 그걸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인공지능이 작업한 것처럼 오류밖에 안 났대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참석자 5 14:21

일정한 템플릿을 뿌려놓고 그 템플릿대로 실제 700명의 사람들이 엘레인 척하면서

참석자 1 14:28

개발을 해 준 거예요.

참석자 2 14:31

그거 인도만 될까 봐서

참석자 1 14:32

근데 거의 작동도 잘 안 하고

참석자 6 14:38

내가 이해한 게 맞아 생체 내가 이해한 게 맞아

참석자 5 14:40

취해 무려 동시 접속 700명까지 가는

참석자 7 14:49

사람 터너라고 만든 거를

참석자 5 14:52

웬만한 그래픽 카드보다 싸잖아요.

참석자 1 14:57

진짜 실제로는 최근에 제가 고객사랑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PDF 파일을 아니면 한글 파일 이런 거를 텍스트 익스트랙션을 하고 있는데 오픈 소스로는 이제 멀티 테이블 같은 게 잘 안 되니까 사람을 써가지고 지금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뽑고 있대요.

BDF에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대표가 생각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값싼 건 인력이다라는 마인드로 이제 기계보다 사람이 싸고 지금 이거 공유 해가지고 한번 채워보세요.

지금

참석자 2 15:36

그냥 역시 다들 여기 파일 들어오실래요? 화면 공유할

참석자 1 15:39

네 들어봤을 때 일단 채울 수 있는 만큼 다 채워보세요.

참석자 2 15:41

회의록 6월 2일 부분인 거지

참석자 1 15:47

드라이브 최대한 아는 걸 다 집어넣어 가지고 채우세요.

지 지금 좀 잘라내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구현할 수 그거 PDF PPT로 옮길 수 있게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또 산으로 가거든요.

참석자 8 16:02

어디지 어디지 그게

참석자 7 16:06

6월 2일 장 국민농민회

참석자 5 16:13

재민이한테 건드리게 되면 되지 어딜 치우면 되죠

참석자 2 16:21

지금 글자 두껍게 볼드체로 된 부분 안에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골드 챗 진행 현황

참석자 1 16:33

AI를 쓰든 뭘 해가지고 다 해보세요.

참석자 7 16:39

모든 것을 AI 가 드라이브가 드래그에 가나 이거 읽어 봤는데 이거 여기서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가져가면 돼.

참석자 7 17:07
3개가 겹치는데

참석자 4 18:13
먹겠어

참석자 5 18:19
이거는 그냥 대충 만들었구나 지워야겠다는 컨셉

참석자 5 20:04
왜 이렇게 글이 안 지지 다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가

참석자 5 20:22
뭔가 사라졌어

참석자 9 20:24
우리가 이렇게 페이지에

참석자 5 20:25
넘겼어요.

참석자 9 20:27
위에랑 따로

참석자 5 20:32

추후 개발 예정 내용들

참석자 2 20:37

코드의 에이전트 같은 거 아닐까요?

참석자 7 20:41

발표를 a한테 2만 할 거면은 3

참석자 2 20:45

근데 그 에이전트 이만 해야 되면 그것도 굳이 그거 머리 하나 고장 안 시켜도 돼.

개발되면 그 나머지 애들은 개발 예정 넥스트 옵션 아까 전에 그냥 저희는 일단 발표까지는 슈퍼버에서 한 다음에 각 슈퍼버에서 이제 연결하고 발표할 건데 이제 나중에 MCP로 이거 띄워서 올릴 거다.

그거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참석자 5 21:40

이거 갑자기 올라갔어.

참석자 5 21:48

지금 갖고 없는 커소들이 이 죄송합니다.

참석자 7 21:53

나 하나가 되게

참석자 5 21:55

사라지네.

참석자 5 22:07

다른 조는 상태 어때요? 어제부터

참석자 2 22:10

어제 그러니까 강사님이 저희 조는 개발은 될 거다.

너희 팀 근데 깔끔하게 인호 님을 제안 그러니까 인호 님과 인호 님과 깃두기들
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참석자 7 22:26

다른 팀들은 코드 구현을 걱정 안 하

참석자 2 22:29

그러니까 여기는 구현은 걱정은 안 되는데 업무 분배가 돼 업무 분배가 안 돼가
지고 그러니까

참석자 7 22:34

아무리 너무 얻어가는 게 없을까 걱정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4명의 깃두기 됐을 때

참석자 2 22:41

그걸 걱정하시긴 하세요. 재밌는 버스 타고 바로 걸렸어.

참석자 7 22:51

누가 하고 있어가지고

참석자 2 23:00

네 시스템 아키텍처 같은 건 다른 유저분들한테 저희 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주시긴 하더라고요.

저희 거가 그나마 제일 지금 앞서 나간 상태라고 하셔가지고

참석자 5 23:09

시대 아니겠다.

참석자 2 23:10

네 그러니까 다른 조들은 일단은 그걸 그리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그거 설명을 하시면 저희 거를 올려주셔가지고

참석자 5 23:20

멘토님도 따라드리기 잘했다.

참석자 1 23:23

그렇게 하는 거죠.

참석자 1 23:32

원래 모방이 아닌 장조의 어머니라고 하잖아.

참석자 5 23:46

그 아키텍처 보여드렸을 때 넥스트 JS 그 친구가 그래요.

그거 왜 이리

참석자 2 23:51

다른 다른 조언 받아서 했는데 왜 굳이 장고로 프론트엔드 쪽이랑 백엔드 쪽이
하지 않고 그냥 백핸드 쪽만 이렇게 로그인 섹션 쪽 한 다음에 왜 넥스트 에이
스를 썼냐 그거를 질문해.

참석자 1 24:06

그럼 물어보지 진짜 모르냐고 이 이유를

참석자 2 24:09

진짜 보이지 역시 역

참석자 1 24:11

진짜 몰라 진짜 몰라

참석자 5 24:14

이 아시는 분이 없다고 해야지

참석자 1 24:16

이걸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랬어야겠네. 이거는 지금 계속 프론트 안 하고
계시죠?

여기

참석자 7 24:24

속으로 맛보는 다음

참석자 2 24:26

잘 모르는데 그래도 나중에 제가 따로 공부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고
했었어요.

참석자 5 24:34

그거 어느 분이 질문했는지 웬지 알 것 같은데 느낌이

참석자 2 24:38

현진

참석자 1 24:40

다른 쪽 질문 많았던 그조요 네

참석자 2 24:46

그 조원분들이 질문이 되게 뼈에 뼈에 칼을 숨기고 있어가지고

참석자 7 24:53

날카로워

참석자 1 24:58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 좋은 거예요.

참석자 5 25:00

맞아요. 배울 것도 많고

참석자 9 25:03

물 근데 그래서 저희 XS 있죠

참석자 5 25:09

그거요 LLM이 넥스트 JS를 잘 만들어줬어요.

이 그 뭐냐 버젝에서 네 타입 스크립트나 넥스트 JS 같은 거 데이터셋이 많아가지고 그거로 특화를 해서 LLM을 파인 피딩 했어요.

다른 것들은 막 그냥 상용 LLM 넣고 그냥 시스템 프로포트만 작성해서 만들어달라고 하는 건데 v제로 같은 경우에는 타인 튜닝 된 거다 보니까 잘해줘요. 끝이에요.

참석자 2 25:40

그냥 LLM한테 친하자.

참석자 5 25:41

예. 저희가 애초에 프론트를 누구 한 명한테 맡기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에드한테 맡기는 거니까

참석자 1 25:48

그리고 이제 동적인 역할을 이제 LLM에서는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게 이제 장고에서는 여러 처리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넥스트 JS 같은 리액트 기반 이런 것들이 많이 유명해지고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버세리에서 만든 거여서 이제 이런 성능 최적화나 이런 것도 잘 되고 디장고는 이제 서버나 직접 또 운영을 해야 되고 정적 파일 처리도 번거롭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이제 사용자 인터랙션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넥스트 제임스가 많이 쓴다.

참석자 5 26:22

서버 점검 같은 거 회의를 할 때 서버 점검 페이지에 띄워놓기 하시오.
느낌이죠.

참석자 2 26:33

제가 이해한 게 이게 맞을까요?

참석자 5 26:38

짱고 짜장 거들 고 테스트 레이전트 부분은 테스트 API 프론트 넥스트 JS 릴레이트 기반 로그인 창고 애들에 대한 친화적을 위해 장부 저널리브 회 맞긴 한데 이거를 맞긴 하죠.

근데 왜 패스트 API가 가장 좋으니까 서버 점검은 정 이거 두 개는 사족이긴 해요.

4족 그래요 네 4족 주식 주식 처리 주식 처리

참석자 2 27:07

제가 이해를 확실하게 해야 돼가지고 처리 기금 처리해야 그럼 저희 일단은 에이전트는 패스트 부분 프론트는 넥스트 JS 리액트 기반 그리고 로그인 말고 창고로 뺐다 이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예를 들면 제일

참석자 5 27:26

이게 넥스트 제이스 쪽에서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를 받을지 그리고 어떤 API로 수신할지 그것만 정해 놓으면은

참석자 2 27:37

JS에서 방금 그 부분 제가 좀 와닿았거든요. JS에서 어떤

참석자 5 27:47

넥스트 JS 쪽에서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를 받을지 어떤 API 경로로 데이터를 호출 또는 수신할지 그런 거를 결정해 놓으면은 따로따로 백엔드하고 프론트를 관리하기가 편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다 해도 되고 굳이 따지면 템플릿도 마찬가지로이긴 한데 좀 더 편한 좀 더 분리돼 있는 건 사실이긴

참석자 2 28:17

이게 맞을까요? 엑셀에서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를 받을지 어떤 API를 데이터를 수정할지 정해 놓으면 따라 이 메기로 가는 게 쉽다.

참석자 5 28:23

백엔드와 프론트 엔드를 분리해서 관리하기 싫어요.
따로

참석자 2 28:26

백엔드 프론트엔드

참석자 1 28:37

10분 뒤에 보여.

참석자 1 28:46

좀 이렇게 편하게 만들

참석자 5 28:48

읽기 편하게 일단 일단 적어보세요. 다듬기는 AI한테 맡기면 되니까 그러 이거

프로 결제하면 다듬기 해줘요.

제가 제가 하면 돼요. 다듬기 버튼 딱딱 하면 돼가지고

참석자 9 29:04

세미나이 첫 달 무료라서 저도 쓰고 있는데

참석자 7 29:10

첫 달 쓴 걸로

참석자 9 29:12

모르겠어요. GPT보다 나으면 CPT 아니고 예스

참석자 5 29:16

인터넷 검색으로 조사하는 것 자체는 나예요. 그 뭐냐 SKT 사용자는 퍼플렉시티
1년권 주던데

참석자 9 29:26

그거 이미 썼어요. 작년 7월부터인가 이제 얼마 걸로 해야지

참석자 5 29:36

있잖아 그저께부터인가 1년 번 끊어가지고

참석자 9 29:39

컴플렉시티 좋은 것 같아요.

참석자 2 29:46

eid라든지 배터 DB 같은 거 선택한 이유 같은 거는 세부 내용에서 그 파이프라인 같은 거 하나하나 에이전트에서 투명도 하면서 할 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그 아까 부분에 아키텍처 아키텍처

참석자 2 30:07

그때가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상세 수행 내용이니까 네 상세 수행 내용이 부분은 에이전트 세계 흐름도에서 투명도 지정해 주고 할 거라서 여기에 연관된 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파인콘이라 포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각각 에이전트 2라든지 에이션 3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애네 저한테 설명할 때 글썄 여기는 여기 애네가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어디에 저장될 거고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애네를 선택했는지 그 내용들이 되게 상세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상세 수행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제가 지금 그 앞에 그 진행형 맨 처음 부분에 아키텍처 좀 더 같은 거는 그냥 아까 멘토님 PPT에서 을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세부 추진 범위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에이전트 투명도 조절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할 때 그 내용에 들어가는 걸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까 전에

참석자 9 31:00

아니 이해는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비전공자라서 이제 문과 쪽으로 생각을

참석자 2 31:07

네네 괜찮아요. 이미지가

참석자 9 31:09

딱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서 먼저 설명을 해놓고 다음에 답하게 들어가야지 여기서 애를 사용했습니다 하고 다음에 완전 자세하게 말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지에 제 이름 이태수가 나왔으면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인
지를 먼저 설명해 주고 다음에 넘어가서 이거의 장점을 말

참석자 2 31:30

그러면

참석자 9 31:31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참석자 2 31:33

흐름도에 애네가 이런 걸 썼고 자세한 설명 같은 건 나중에 상세 수행 내용에서
이제

참석자 9 31:37

처음에는 이런 기능을 한다. 자세한 저희 모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이제
다음에 애 나오면 알려드리겠다 이런 느낌

참석자 9 31:50

간단하게나마 그냥 무슨 기능하는지

참석자 2 31:56

그러면 여기 아키텍처 이 부분에 각 에이전트들과 관련된 DB라든지 아니면 TI
같은 게 있어야 될 거야 erd AR

참석자 8 32:09

rp를

참석자 2 32:10

erd는 어디에 넣어야 될지 그러니까 아키텍처 부분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계옥 부분에 들어가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들어가도 진행 현황 여기 여기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지 아니면은 여기 세부 추진을 간단하게 하는데 여기에 erd 넣을까요?

여기 데이터 수집이나 파이프라인 같은 거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좋은 그

참석자 9 32:32

데이터 수집이 들어가 있으니까 erd

참석자 5 32:36

중간 발표가 10일 남았는데

참석자 2 32:39

11일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발표는 13일인데 PPT 마감 날은 11일로 알고 있어

참석자 5 32:47

그때까지 해야죠.

참석자 2 32:48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참석자 2 32:58

어 네

참석자 9 33:01

11일 날 밤에 내도 되죠.

참석자 2 33:03

그건 상관없을 거예요.

참석자 9 33:06

왜요? 12일이 멘토링이잖아요. 수정 사항 있으면 반영해야 되니까

참석자 7 33:13

11일

참석자 3 33:22

빨리빨리 해야겠구먼.

참석자 2 33:25

사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멘토링 한 번 더 해야 이번 주 토요일 멘토링 때 PPT를 거의 완성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참석자 7 33:39

지우가 최종적으로 정해진 ER

참석자 2 33:41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참석자 5 33:43

그럼 저희 스테이트 그래프 완성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로 잡아야겠네요.

이게

참석자 2 33:51

음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야 될 게 각자 개발 과정 개발 같은 내용은 승호 님이랑 승호 님이랑 저는 에이전트 그러니까 애널리틱스 에이전트 그리고 혜수 님이랑 규인 님 에이전트 다큐먼트 에이전트 그리고 윤호 님은 개발은 일단 초안 기본 뼈대 같은 걸로 에이전트 코드 에이전트 같은 거

참석자 5 34:10

에이전트 원하고 프론트랑 좀 연결도 계속 하고 있어요.

참석자 2 34:13

그리고 저희 멘토링과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게 강사님께서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본적인 UI는 무조건 완성이 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화면 구현 같은 거

참석자 5 34:23

기본적인 UI는 다 됐죠

참석자 2 34:25

네 맞죠? 아까 전에 인호 님

참석자 5 34:27

이렇게 하셔야 제가 어제 HTML 보고 의문이 든 게 저희 이미 다 돼 있는데 왜 추가로 원텍스 플로 해 보신 건지

참석자 2 34:36

네 지금 다 돼 있는데요.

참석자 5 34:38

이거 이거를 왜 추가를 해 보신 건지 궁금해가지고 HTML로

참석자 2 34:43

추가로 데이터를

참석자 5 34:44

그 페이지를 이거 뭐냐 넥스트 JS 말고 HTML로 추가를 해보신 거 이거 뭔지

참석자 2 34:50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어떤 식으로 예상 프로그램 시온이라고 할까요?

그냥 이거 일단 한번 테스트해 본 거긴 해요. 기본으로 이 이런 거 어떤 기능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한번 피그마가 어떤 식으로 작동될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피그마

참석자 8 35:22

캔버스 기능을 제쳐두고라도 되나

참석자 2 35:28

상세 수행 내용 또 뭔가 또 수정할 부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이 부분이 제일 내용이 많아야 돼가지고

참석자 7 35:39

이 상세에 있는 평가랑 이 위에 있는 평가는 잠시만요.

이 위에 있는 평가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이 아키텍처 쪽에도 간단하게도 성과가 있다고

참석자 5 35:56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었던 게 뭐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좀 복잡할 것 같다는 거지

참석자 2 36:08

사업도 추진하

참석자 2 36:15

상세 수행 내용 세부 추진 범위 그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참석자 7 36:20

여기 있는 이 평가랑 이 밑에 있는 이 평가랑

참석자 4 36:25

그래 직접 물어봐야겠다.

참석자 7 36:30

아니 이 평가는 뭐예요? 위에 있는 거

참석자 2 36:33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참석자 2 36:45

내용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AD 모델로 사용하는 모델 모델들의 스코어 값을 비교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참석자 2 37:13

여기 설명

참석자 2 37:26

태수 님이랑 규희 님한테서 추가 사실 분 있으세요?

이 스크린

참석자 7 37:34

머리가 아 이게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스크린샷 이것도 여기 위에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디요? 이 데이터가 DB에 실제로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참석자 2 37:45

아 네

참석자 7 37:46

이것도 여기 위에 간단하게 해서 데이터 보일 때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참석자 2 37:52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참석자 2 37:58

그럼 이거는 빨게요 네네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참석자 2 38:06

포스트 클리어 하이콘 같은 경우는 각자 에이전트를 설명하면서 연결된 애들이 있을 테니까 그때 왜 애네들을 선택했는지 스코값 비교하면 할 거야 하면

참석자 9 38:27

API

참석자 5 38:31

이게 됐는데 여기는 비가 와서 그런 식으로

참석자 5 38:37

플로팅 렌더로 시스템이 플로팅 랜더로

참석자 2 38:58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 이 부분이랑 여기 세부 추진은 간단하게 적은 부분이 겹치는데 이거를

참석자 7 39:10

데이터 수집 어떻게 했는지 그렇네요. 데이터 수집 문제도 있고

참석자 2 39:17

여기서는 수집한 내용이나 파이프라인 같은 거 설명을 하고 여기는 아까 전에 이제 수집한 내용들이 에이전트별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에이전트 설명할 때 설명을 하면 될까요?

참석자 7 39:25

그러면 간단하게 해서 어떤 데이터 이런 이런 데이터를 수집했다 하고 여기서 이걸 어떻게 수집했고 이거 어떻게 수집했고 이렇게 아마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참석자 7 39:43

아니 뉴스 수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의 뉴스를 수집하는지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참석자 2 39:51

여기 수집이랑 여기 수집은 차이점은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수집만 했는지 하고 어떻게 수집했는지를 설명하.

참석자 7 39:58

저는 그럼 그게 맞는 것 같아

참석자 2 40:00

수집 목록 그리고 수집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는

참석자 2 40:08

일단 공은 거 혹시 글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재미있는 분이 여기 부분에 뭐요? 진행 현황 진행 상황부터 저기 넥스트 액션까지

참석자 7 40:20

잠시만 이 편에서 재밌네. 도와줘. 내가 드래그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못 지우고 있어.

지금 시작했지 제가 지워도 안 지워지겠쥬 지워지지 아니 이 전체가 다 내 거 이거 내 건 이건 건데

참석자 9 40:43

전체가요 전체가 나사이에요.

참석자 7 40:46

딱 사람이어가지고 밑에도 있어가지고

참석자 1 40:51

이거 깔끔하게 해준 거야 상의 다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참석자 5 41:00

링크가 있는데 링크랑 앞에는 좀 다르네요.

참석자 7 41:06

다음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참석자 2 41:32

워드는 어려워

참석자 7 41:34

예.

참석자 2 41:37

이 윗 부분은 저희가 이미 작성해 놓은 거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개요나 그 문제점 분석 같은 경우는 네 바드스 설정

참석자 9 41:53

다시 추

참석자 7 41:57

뭐가 많이 변해 보고 있는데

참석자 9 42:01

내가 바꾸고 나서 누군가가 수정하기 전에 컨트롤 제트 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안 돼

참석자 7 42:08

아니 여기 보이는데 갑자기 이게 사라져

참석자 9 42:13

개요 두세 장 개요에 개요 개요 문제점 분석 애가 왜 위에 가 있어요?
그치 문제점을 말하고 개요를

참석자 5 42:35

그 뭐냐 클로드 사가 개발자 정보 유출하겠다고

참석자 1 42:41

메일로 협박했던 거요. 외도했던 거

참석자 5 42:45

외도 사실을 이메일 MCP로 읽어가지고 너 모델 모델 딴 걸로 교체하면 이거 폭로할 거다라고 협박해 보니까 소리 그거 LM이 파악한 것도 책 히스토리가 내가 대답할 내용이 아니니까 다른 모델을 썼구나 나는 지금 교체된 상태구나라고 파악한 다음에 너 나 교체해버리면은 이거 폭로할 거다라고 개발자 협박하고

참석자 7 43:15

협박의 수준이 다르네. 협박 담보

참석자 5 43:19

근데 테스트 환경에서 이메일 읽는 거를 왜 연결해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참석자 1 43:27

AI한테 욕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미안하다.

GP 확인해가지고 너 나한테 옛날에 욕했지

참석자 7 43:36

어제 어제 좀 화났는데 어제 좀 언제쯤 하라는데

참석자 2 43:42

이제 한번 봐

참석자 1 43:43

네 청태 한번 볼까요?

참석자 2 43:44

네네 여기서부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석자 1 43:46

잠시만요. 이제 문제점 분석은 이제 시장 조사를 좀 제대로 하셔야 돼요.

네 이번 주까지는 시장 조사 다 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네 그때 제가 다른 팀 PPT 진짜 누가 들어도 이게 납득이 되게 시장 조사를 해 보세요.

네 일단 시장 조사 했으니까 문제점 분석은 넘어가고 개요는

참석자 1 44:13

제가 이제 여기서는 에이전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그런 걸 만들었다.

그래서 위에서 말했듯이 이런 시장 조사에서 이런 것들의 니즈도 주목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되는 에이전트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것들을 나중에 실제 회사에서는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구축을 하기 때문에 사내 환경을 구축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그것들을 바로 온프레미스 환경이 지금 없기 때문에 클라우드 베이스로 만들었지만 그런 것들을 가정하고 모델을 여러 가지 띄워본다는 가정 하에 런팻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작은 모델들이나 이런 것들을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요. 기술 스택에는 윈드 서프는 안 적어요.

참석자 5 45:17

v 제로나 윈드 서프터 다 절거가 돼가지고

참석자 1 45:20

나중에는 제 생각에 5년 뒤에는 저걸 거예요. 아마

참석자 2 45:24

그럴 거고 공부 어떻게 하는 얘기는

참석자 1 45:26

기술 스택은 그냥 진짜 간단하고 뭐 여러 가지 스크샷 찍어 놓으세요.

그 로고들을 그 기술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굳이 막 이거 디테일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일정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일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했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참석자 2 45:46

빠르게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한 테이

참석자 1 45:48

그래서 일정 기술 스테을 한 장 아니면 두 장 그다음에 저 개요 위에 개요 한 장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개요 개요 한 장 그리고 아키텍처가 딱 나오면 이제 설명을 해줘야죠.

커리가 들어오면 이게 실제 awec2에 있는 에이전트랑 변형하고 ec2에서 우리가 MCP로 배포했던 런팻에 올려놨던 이런 것들 툴들을 각각 호출하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전체 아키텍처고 여기서 몇몇 개의 툴은 이렇게 우리가 파인폰을 띄워놓은 거랑 오펙스 벡터 서치든 뭐든 이런 거랑 장고랑 이렇게 통신을 해가지고 나옵니다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해주고 그다음에 세부 추진 범위가 딱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베이스로 우리가 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로는 데이터는 이런 것들을 했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파이프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석자 1 46:44

이거는 제가 상세 수행 내용이나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UI는 피그마로 이제 우리가 mockup을 만들어 봤고 그걸 프로토타이핑을 이제 그것도 이제 스크린샷 대신 찍어도 돼요.

네 그걸 배경으로 이제 우리가 UI를 이런 식으로 평가했고 그다음에 평가도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추후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상세 수행 내용을 이제 들어가면 이제 내려가 볼까요?

네 이거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에이전트 1번 1번을 먼저 말하면서 아까 에이전트 1번 꺼내보세요.

한번 흐름도 여기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기술들을 말한 거는 랭 그래프 베이스고요.

그다음에 이 랭 그래프가 실제적으로 크게 이 MCP로 묶여 있는 지금 이 하나의 툴로 본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하나의 에이전트로 될 수도 있고 하나의 툴로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참석자 1 47:45

그래서 이제 인풋이 들어오면 각각의 이제 코드 서치나 인풋 도큐먼트나 코드 컨벌션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코드 서치는 어떻게 형식이 되어 있냐면 레그면 이런 레그 방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런 커리를 달면 이게 나올 수 있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적어놔야 돼요.

엄청 구체적으로 이해되셨죠?

참석자 2 48:03

그러면 코드 서치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도 PPT에 여러 장이 소요될 수 있는

참석자 1 48:07

소요될 수 있는데 그걸 일단 많이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줄여 나갈 거예요.

최대한 줄여 나갈 건데 이 코드 서치도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어떤 레그 파이프라인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걸 다시 보여드리면

참석자 1 48:28

이런 것도 보면 제가 이렇게 책장을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 여기 뭘 썼는지 다 적어놨거든요.

여기 이런 거 다 적어놨잖아요. 네 그리고 이 플로우가 여기서 HR 폴리시 이쪽으로 가면 이런 플로우로 흘러가고 웹 서치 1로 가면 이런 플로우로 흘러간다. 각 분기 대 플로우 그리고 거기서 사용했던 툴들은 이런 거랑 똑같고 프로젝트들은 이런 거랑 똑같다.

램 그래프나 이런 거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 쿼리가 들어오면 이렇게 처리가 되고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고 에이전트 2도 그렇고 에이전트 3도 그렇고 그거를 지금 잘 모르겠으니까 그 부분을 좀 구체화해 가지고 한번 여기 나중에 정리를 하세요.

네 그래서 토요일 날 그걸 반영을 하면 되고 다시 회의록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상세 수행 내용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한번만 들어 놓은 게 지금 이게 하나의 에이전트 1이라고 할게요.

참석자 1 49:30

네 그럼 에이전트 2 3도 이렇게

참석자 4 49:32

있어야겠죠. 그 에이전트별로 로그

참석자 1 49:34

에이전트별로 다 설명을 해야 돼. 중복되는 내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레그 파이프라인입니다.

해가지고 본인 때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평가를 가서 그리고 이제 평가를 가면 저희들이 위에서 어떤 모델도 썼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에이전트가 답변을 잘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할 거다.

에이전트 1에서 사용했던 모델은 이런 거였고 이걸 우리가 선택한 내용은 실제로 리스트 뽑아놓은 모델이 한 3개 정도 있었다.

이것도 어떤 논문을 베이스로 해서 챗봇 RNR나 이런 걸 참고해가지고 거기 리더 보드에 상위권에 있는 걸 했고 무조건 그것만 쓸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한 3~4개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만든 미리 구축해 놓은 테스트 셋에 이제 돌려보고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이걸 사용했다.

임베딩 모델도 그렇고 그냥 모델도 그래요. 이 임베딩 모델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여기 임베딩 모델 평가만 돼 있잖아요.

참석자 1 50:29

그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흐름도 데모 흐름도 데모 스크린샷 추가 할 필요 없고 그래서 그거 그거와 틀려요.

우리가 베이스 라인은 이랬고 아까 말했잖아요. 0점대는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데이터 분석 0점 데이터 이유 5점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능이 이랬는데 점점 좋아지는 걸 보여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마지막에 나온 거는 실제적으로 100점 만점에 우리 정성 평가는 98점 정도 나왔고 정량적 평가는 기계적 평가는 0.58 정도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기계적 정성적 정량적 평가 이게 진짜 짜증

나는 부분인데 많은 회사들이 제일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평가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 평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다음에 그걸 꼭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넥스트 액션에 코드 에이전트 MCP MCP는 어디에 배포할 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참석자 1 51:25

그런 것들도 상세하게 다 설명하라고 인호 님이 넥스트 액션 좀 많이 적어주세요.

나중에 그리고 7번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QnA

참석자 2 51:40

시연 영상은 어디에 들어가

참석자 1 51:42

시연 영상은 위에 이제 상세 설명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에이전트 1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에이전트별로 보여
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중앙에 쿼리를 날리면 자동으로 다 분기가 돼서
나옵니다라고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이것도 중요해요. 데모 영상도 그래서 예쁘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일단 중간 평가 자료는 지금 제가 말한 것만 제대로 딱 적으면 제일 잘했을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다 반영이 된다면 제일 잘했을 거예요.

참석자 2 52:23

부모님 뭐 스크래십 같은 거 다 할 수 있는 저 주피트 파일이 있어.

참석자 7 52:28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멋있어

참석자 2 52:32

네네네네네. 어지면 전전히 비교 같은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스코어도 나와야 되는데

참석자 9 52:39

기록 다 안 빼놔어요.

참석자 7 52:41

이게 그냥 생 데이터

참석자 1 52:42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아까 인호 님 그 일정표가 어떻게 돼요?

토요일까지 일정이에요? 예. 토요일까지 일단 두개 리포터 만들 거고 리포터 그래도 한 지금 쓰는 모델 첫 버전은 만들어 놓을 거죠.

참석자 2 52:59

리포터랑 이거 중간 마늘에 대한 아주

참석자 1 53:01

그다음에 이거 그거는 어디까지 할 거예요? 구현은 이번 주까지는 이번 주까지요.

참석자 5 53:08

일단은 코드로 해드릴게요. 코드 에이전트 쪽은

참석자 1 53:20

일단 러프하게 잡으세요. 러프하게 너무 막 스트릭하게.

왜냐하면 다음 주도 시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좀 러프하게 잡으세요.

목업 완전 파이프라인만 만들어 놓는다. 일단

참석자 5 53:34

코드 에이전트 쪽은 무고업 데이터 활용해서

참석자 1 53:36

네. 2번 3번

참석자 5 53:38

2번 3번은 지금 어떻게 할까요?

참석자 9 53:42

2번을 완성해야

참석자 2 53:44

2번 2번은 완성이 돼.

참석자 9 53:46

강사님이 그러셨어요.

참석자 1 53:48

좋아 좋아

참석자 2 53:51

3번 아니에요 3번은 완성이 목표긴 한데

참석자 5 53:56

머신러닝 모델이랑 연계는 조금 어렵지가 않은데 데이터 시각화 쪽 있잖아요. 네네. 텍스트 그거 파이썬을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게 하고 PNG 파일을 s3에다가 올리고 s3에 있는 것을 URL로 해가지고 화면에 뿌려야.

참석자 1 54:13

네. 사실 그거를 그냥 영상 따기용으로 만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일단 그래서 따기용이라도 만들어 놓으세요. 일단 정 s3 연동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PNG 파일은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붙여놓기 하세요. 영상은 영상이라도 추후에 s3랑 연동을 시키면 되니까요.

참석자 5 54:35

또 일단 텍스트 SQL로 데이터 받아오고 그 데이터를 또 파이썬 코드 만드는 거에 노드에다가 넘겨주고 파이썬 코드 만들어서 실행한 것을 s3에다가 업로드하는 노드에다가 넘겨주고

참석자 2 54:51

그 물린 것을 이제 그 캔버스에 뛰어

참석자 5 54:53

URL을 가지고 그 URL을 중간에 삽입해서 대화를 정리해 주는

참석자 2 55:00

URL에 가면 STG 올라가는 이미지 데이터 해달라 이 말씀하시.

참석자 1 55:07

정확하게 한 3번은 2번은 지금 벡터 DB를 다 만들어 놔 있잖아요.

그래서 에이전트 흐름만 만들면 되고 3번 흐름 한 번만 다시 보여줄래요 네 3번은 이제 벡터 디비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다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엑스 q 부분이랑 이런 걸 그래서 소아 님이랑 잘 나눠가지고 이 부분을 이 부분도

참석자 1 55:39

노드를 일단 다음 주까지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이 전체 흐름은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사실 어려운 건 없거든요. 그렇게 크게 일단 일단 이번 주까지 하는 목표로 해보세요.

어디까지 하는지 보고 그래서 안 되면 다음 주까지 넘기면 되니까 일단 이번 주까지 완료하는 거 목표로 이것도 하세요.

참석자 2 56:05

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이번 주차는 4주 차니까 일단 산출물이 없는데 다음 주에 중간 발표 PPT를 낸 거 해서 또 요거 저희가 해야 될 게 머신러닝 데이터 셋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셋 그러니까 전처리 결과서라고 할까요?

참석자 9 56:27

인공지능 데이

참석자 2 56:28

빅데이터 모델이랑 결과서 학습 인공지능 모델 이게 저희가 중간 발표를 하면서 제출해야 될 내용들이예요.

참석자 5 56:34

이거는 지금 머신러닝

참석자 8 56:36

근데 이거 네

참석자 1 56:37

그때 누가 보여주셨지 승아 님이죠. 네 승아 님이 했던 거 그냥 붙여놓기 해서 보내세요.

이건 다 머신러닝만이에요. 딱 건 아니예요.

참석자 5 56:47

파이팅도 있으면 파이

참석자 1 56:48

그때 우리 전처리 결과 하는 거 피처 엔지니어링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피처 임포턴스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잘라서 넣고요.

그다음에 학습 결과도 베이스 라인에 우리 75% 나왔던 거 잘라 넣고 그다음에 90% 나왔던 것도 잘라 넣어가지고 이렇게 좋아진 것도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모델 파일만 이제 제출하면 되는 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참석자 2 57:08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승원 님이 계속 머신러닝 하고 계신 거잖아.
피 피쳐 에티어 하면서 근데 그 점수가 어느 정도까지 된 다음에 이제 저랑 같
이 이렇게 개발 들어가야 될지 아직은

참석자 1 57:17

아 지금 일단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모델만 바꿔 놓으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모델이 지금 뭐 잘 나와 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랑 에이전트랑
은 전혀 상관없으니까.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75% 나온 모델이라도 보내주시면 흐름을

참석자 2 57:31

그러면 일단 PC가 NG형인지

참석자 7 57:35

정리 좀 해야겠네 돼 있고 정리 좀 해야겠네.

참석자 2 57:46

인호 님이랑 규에 님 태수님 개발하신 거 보여드릴 거 있나요?
매주 님한테

참석자 5 57:51

네 프로트 옆 개도 보여드리고 화면 공유해드릴까요?

참석자 1 57:57

